

일본 국제이해교육학회 제24회 연구대회 참관기

김선미*



간사이공항에서 리무진을 타고 차창 밖으로 도심의 모습을 한참 구경하다 보면 고즈넉한 분위기의 나라에 도착한다. 조금만 걷다 보

* 중앙대학교 국제교육팀

면 쉽게 마주치는 유적지들 사이에 나라교육대학이 있다. 학교 옆 기념비에서 예전에 군사기지였던 자취를 찾아볼 수 있는 나라교육대학은 크지는 않지만 정갈한 분위기의 캠퍼스가 역사 위에 서있다.

일본 국제이해교육학회 제24회 연구대회는 6월 14일과 15일 이틀간 이곳 나라교육대학에서 개최되었다. 한국 국제이해교육학회에서는 회장인 강순원 교수를 비롯해 학회 회원 13명이 참가하였다.

연구대회는 두 개의 주제를 다룬 심포지엄과 특정과제연구로 진행되었다. 심포지엄1은 ‘ESD와 국제이해교육’이라는 주제로 일본이 2002년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에서 제창한 ‘유엔ESD의 10년’이 끝나는 2014년을 맞이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ESD에 관한 연구와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논의하였다. 4명의 발표자들이 ‘ESD의 새로운 추진을 위해-10년간의 성과와 과제-1)’ ‘ESD의 진수로부터 일본의 실천 파악: 국제적 관점으로부터의 접근2)’ ‘ESD에 접근하는 지역·세계유산교육- ESD의 도구로서3)’ ‘동일본대지진을 경험한 일본이 세계를 향해 발신해야 할ESD4)’를 발표하였고 질의·응답을 통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논의 내용 가운데 현재 일본 ESD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역 편차가 언급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지역 담당 기관의 의식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점이 지적되어 일본 ESD교육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간 의식 차이를 줄이는 방법의 모색이 향후 과제로 제시되었다.

심포지엄2는 ‘언어교육과 국제이해교육’이라는 주제로 학회 특정

-
- 1) 아사이 다카시(오카야마시ESD세계회의추진국장)
 - 2) 나가타 요시유키(세신여자대학)
 - 3) 다부치 이소오(후쿠야마시립대학)
 - 4) 오이카와 사치히코: 미야기교육대학국제이해교육연구센터

과제연구에서 과학연구비 프로젝트로 발전되어 온 ‘언어와 국제이해 교육’의 성과를 공유함과 동시에 향후 국제이해교육을 가미한 언어 교육에 대해 논의하였다. 3명의 발표자가 ‘언어교육과 교재’⁵⁾ ‘초등학교에서 다언어 활동의 가능성-모노링겔증후군을 넘어서’⁶⁾ ‘다언어 활동과 교원 연수’⁷⁾를 발표하였고 질의·응답을 통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특정과제연구는 ‘국제이해교육 실천 연구의 관점’이라는 주제 아래, 4개의 보고를 바탕으로 그룹을 나누어 의견을 교환하는 워크숍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연구위원회와 실천위원회의 3년간 공통 주제인 ‘국제 이해 교육 실천과 실천 연구’의 제1탄이 되는 기획으로, 이론과 실천의 통합을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실천자 자신의 임상 연구 스타일 확립을 위한 이론적 전망과 실천 사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일본 국제이해교육학회는 구성원 가운데 현장 교사가 많다는 점이 한국 국제이해교육학회와 공통적인 특성이라 하겠다. 이런 면에서 이론과 실천이 통합된 연구 방법의 시도는 한국 국제이해교육학회의 과제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향후 연구 추이가 주목되는 바이다.

자유연구발표는 총 12분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한국 국제이해교육학회 회원 8명도ESD, 다문화, 평화, 언어교육, 유아교육, 역사교육 등 다양한 주제로 자유연구발표에서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활발한 국제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이 함께 모이는 만찬 시간은 심포지엄과 자유연구발표에

5) 야마니시 유지(와세다대학)

6) 후루이시 아츠코(케이오기쥬쿠대학)

7) Argyro Mourtzidou(Aristotle Univ.)

서 다 하지 못한 연구 이야기도 나누고, 일 년에 한두 번의 만남을 몇 년간 이어오며 쌓아 온 한국 회원과 일본 회원 간의 투박한 정도 나누며 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